



2면

文대통령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음 3월 8일) 제250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별 2길 6번지

## 전북도, 코로나19 확산 차단 사활

### 해외입국자 '새 변수'... 전수검사·자가격리·이송지원 등 엄격한 대응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와 자가격리, 접촉 최소화 등을 위한 체계적인 이송 등 정부 대책보다 선제적이고 강화된 대응에 나선다.

개학을 앞두고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선제적 추진과 함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관리에 나서 코로나19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30일 시군 영상회의를 통해 도내 해외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각 시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 입국자에 대해 전수검사, 27일부터 미국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세를 고려해 모든 해외입국자로 검사 대상을 전격 확대한 것이다. 전수검사 방침에 따라 3월 13일 이후 입국한 도내 주소를 둔 도민은 신분증과 항공권 또는 여권을 지참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전북도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정부 방침보다 선제적이고 엄격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격리조치로 도 차원에서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하고, 군산시와 익산시도 임시생활시설을 자체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은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원하

는 이를 대상으로 하며, 입소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27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의 강화된 방침에 따라 3월 27일 이후 입국한 도내 거주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엄수해야 하며 전북도는 자가격리 위반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8일 기준 도내 해외입국자는 모두 390명이며 권역별로는 미국 75명, 유럽 57명, 미국을 제외한 아메리

카 30명, 아시아 198명, 기타 30명 등이다.

전북도는 해외입국자의 도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택 또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의 이송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미국·유럽발 인천공항 입국자는 전용차량으로 광명역까지 인솔하고 KTX 전용칸에 탑승시키고 있으며, 그 외 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시외버스 또는 리무진에 탑승하고 있다.

도는 미국·유럽발 해외입국자가 광명역 KTX 이용 시 하차하는 익산역,

전주역 등 도내 5개 역에 근무자와 입차택시 10대를 배치하고 무상으로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공항버스 이용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익산 보건소, 군산 보건소, 남원 농협하나로마트에 전용 임시 하차장소를 정하고 근무자와 차량을 배치해 이송 관리를 하고 있다.

전주 월드컵경기장에는 도소방본부 지원 차량 15대가 배치돼 귀가를 지원하며, 군산과 익산 보건소에는 보건소 차량 3대, 남원 하나로마트에는 입차택시를 통해 이송을 돕는다. 익산 보건소에 하차하는 해외입국자는 자택 또는 임시생활시설인 익산유스호스텔까지 이송된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은 30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해외 입국자 수송 지원 천막을 설치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전주로 도착한 리무진 버스 승객들을 대상으로 이후 이동 경로와 증상 등을 확인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철저하게 힘쓰고 있다.

### 전북도, 양봉농가 지원 준비 착수... 조례 등 성장 토대 마련

전북도가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양봉농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준비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달 말 '전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 보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밀원식물\*의 확충과 육성, 양봉관련 교육훈련,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 방법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양봉산업에 대

한 보다 폭넓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양봉산업법에 따른 농가 등록 의무 제도도 시행된다.

도는 양봉산업법과 동시에 시행되는 도가 제정된 조례에 따라 양봉통계 관리 등 체계적인 산업육성 지원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성 기자

## 건강한 농수산물 싸게 사세요

### 전북도-시군 특판행사 '드라이브 스루' 도입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와 도민을 위한 농수산물 특판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오는 4월 4일 도청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30%~50% 할인해 특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판행사에는 '딸기, 방울토마토, 사과, 동쪽(수산물)' 등이 파격(3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은 꾸러미로 제작돼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소비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로 상품을 선택하면 트렁크에 실어주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이 도입돼 행사장에서의 접촉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2달 동안 코로나19로 소비가 급감한 화훼류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직판행사, 드라이브 부스 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 3월말 현재 3억 1천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실적을 거뒀다. /김진성 기자

## 내달 6일 '개학 연기' 가능성 온라인 개학하나... 오늘 발표

### 교육당국, 대상·일자 고심

4월 6일 오프라인 개학이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지게 됐다.

대안으로 '온라인 개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와 교육당국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 일괄 개학은 어렵다. 그 대안으로 온라인 개학이 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정규수업을 완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되 대상 및 개학 일자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앞서 교육당국은 온·오프라인 원격수업 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운영 방식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육감과 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이다.

또 온라인 수업을 정규수업과 똑같이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 교과 핵심개념 중심으로 수업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격수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로는 △지역·학교별 여건 격차 △스마트기기 부족(학생) △과목과 지원 △초등 저학년의 경우 보호자 도움 필요 △원격수업 격차로 고3 형평성 문제 등이다.

이에 교육당국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과 관련, EBS 온라인클래스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e스쿨 등의 데이터 비용 전액을 무료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온라인 학습 지원 강화를 통해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온라인 학습방 운영 등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수업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온라인 개학에 대해 3월 31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장은성 기자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